실패한 식민지 '개발' 프로젝트*
: 益山 黃登堤의 廢堤化 사례

鄭 勝 振**

1. 머리말
2. 湖南에서 黃登堤의 위치 : 臨益水組의 前史
3. 黃登堤의 復舊 : 1909년 臨益水組의 창설과정
4. 益山 黃登堤의 廢堤化 : 庚川貯水池의 新築
5. 결론 및 과제

〈국문초록〉

벽골제, 눌제와 함께 湖南의 3대 저수지로 알려진 益山의 黃登堤는, 조선의 '水利王' 藤井寬太郎에 의해 臨益水利組合(1909년)의 주요 용수원으로 復舊·改修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신설된 황등지는 改修 20여 년 만에 廢堤化되고, 이에 대한 대체 水源으로서 만경강 상류(高山川)에 庚川貯水池가 신축되었다. 결국 1930년대 중반 경천지(築設)에 의해 식민초기 황등지의 복구공사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판명되었다. 이 실패 사례는 거액의 설치사업비가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平底型 貯水池'로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과 동시에, 초기의 설치공사가 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고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3617).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대표논저: 2003,『韓國近世地域經濟史: 全羅道 靈光郡 一帶의 事例』, 경인문화사 ; 공저, 2008,『한말 일제하 나주지역의 사회변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大東文化硏究院.

하지 않은 모험적이고도 무리한 사업이었음을 실증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1920년대 益沃水組에 의한 大雅池(대간선수로)의 축설과 1941년 全北水組의 합병·창설이라는 일련의 대규모 사업이, 황등제 改修를 둘러싼 이같은 실패를 은폐했던 것이다. 황등제를 포함한 임익수리조합 연구는 韓國水利史에서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의 嚆矢라는 추가적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이후 익옥(1920), 동진(1925), 전북(1941) 수리조합의 모델 케이스로서 식민지 지역사회에 대대적으로 전시·선전되었다. 특히, 재래 제언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저수지형 수조라는 유형론적 특질은 향후 한국 현대 수리·관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 요소와 근대(식민지)의 변화상을 결합하는 문제, 지난 100년간 수리관개의 근현대적 전개를 평가하는 문제 등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1. 머리말

일본인 '식민자에 의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작이었다'든가, '지역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문화공작 레벨에서의 "인물과 사업"에 대한 선전전은, 일제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호남의 지방지 및 잡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言說들이다. 한편, 이러한 관변측 저널리즘이 조장한 '개발붐'과는 대조적으로 식민자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착취적, 차별적 성격의 비판과 폭로가 이른바 고전적 '수탈론'의 분석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허수열의 1910년대 조선농업(특히 호남)에 대한 문제제기 즉, '1910년대 일제의 농업·농촌 개발은 과장된 것이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논쟁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3)]

식민지 '개발'을 둘러싼 이같은 상반된 시각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농

3)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 同, 2014, 「일제초기 만경강 및 동진강유역의 방조제와 하천의 제방」, 『경제사학』 56 ; Chung, Seung-Jin, 2013, "A New Controversy over Korea's Moderniz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viewed from a Perspective of the Regional Agricultural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8 No.1.

촌농민의 삶(의 조건)을 입체적(거시적 및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환 兩批論이 대안이 될 수 없음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존 연구사에서 논의된 분석틀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수탈과 '개발'(문명화), '동화'와 차별(격차)이라는, 사태의 모호함과 거시적 담론구성의 난처함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다.

水利問題(주로 토지개량사업)를 둘러싼 일제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로 수리조합사업 및 식민지지주제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기존 연구사에서 양자의 문제는 產米增殖計劃(1920~34)이라는 식민지 農政과 관련해 통일적인 문제로서 취급되었다. 즉, 수리조합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은 식민지지주제를 체제적으로 확립하고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4] 이같은 수리조합연구는 지역연구와 결합하며 식민지 호남사회에 대한 거시적 전체상을 구축하고 있다.[5]

최근까지 수리조합사업 연구는 萬頃江 일대에 대한 초기 수리조합의 사례분석으로까지 한층 심화되고 있다.[6] 일련의 사례연구는 同사업의 추진주체 즉, 대지주의 존재형태와 관련해 이규수의 '식민지지주 2대 유형론'

---

4) 주요한 연구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李愛淑, 1985, 「日帝下 水利組合의 設立과 運營」, 『韓國史硏究』 50·51 ; 이경란, 1991, 「日帝下 水利組合과 植民地地主制: 沃溝·益山지역의 사례」, 『學林』 12·13 ; 松本武祝, 1991, 『植民地期朝鮮の水利組合事業』, 未來社 ; 徐承甲, 1991, 「日帝下 水利組合 구역내 增收糧의 분배와 農民運動: 臨益·益沃水利組合을 중심으로」, 『史學硏究』 41 ; 박수현, 2002, 「일제하 수리조합 항쟁 연구: 1920-34년 산미증식계획기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5) 호남 지역사회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기존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남궁봉, 1990, 「하천유역일대 간석지상의 간척취락 유형에 관한 연구 : 萬頃江·東津江 유역을 사례지역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蘇淳烈, 1994, 「植民地後期朝鮮地主制の硏究—全羅北道を中心に—」, 京都大學 博士學位論文 ; 홍성찬 외, 2006,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수리조합, 지주제, 지역정치』, 혜안.

6) 松本武祝, 2005, 『朝鮮農村の〈植民地近代〉經驗』, 社會評論社, 제7장 ; 홍성찬 외, 2006, 앞의 책, 제1편 ; 이규수, 2007, 『식민지 조선과 일본 일본인』, 다홀미디어 ; 정승진, 2009, 「일제시대 전익수리조합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농촌경제』 31-6 ; 2009, 「한말 일제초 전통 제언계의 근대적 수리조합으로의 전환: 만경강 하류 옥구서부수리조합의 사례분석」, 『전북사학』 34 ; 2009, 「한국근현대 농업수리질서의 장기적 재편과정(1908~1973): 만경강유역 전북수리조합의 합병사례분석」, 『韓國經濟硏究』 26.

(東拓型과 不二型)과 직결하고 있다.[7] 식민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식민자로서 대규모 토지개량사업을 통해, 그것을 안정적으로건 모험적으로건 간에,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文明化의 사명', '개발을 통한 同化'를 완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사다(淺田喬二)의 고전적 연구 이래 지주제와 결합되었던 수리조합 연구들은,[8] 향후 대규모 수리사업이라는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식민지 지역사회에서 일본인 식민자의 행위패턴(=투자패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들을 촉발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호남 지역사회의 차원에서의 수리조합 연구는 植民都市史, 在朝日本人 연구 등과 긴밀한 연계를 전망하면서,[9] '植民地公共性'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10] 松本武祝은 '공공성'이 작동하는 所在 가운데 하나로 수리조합을 채택해 사례연구에 천착했는데, 수리조합 간 의사결정과정 및 합의에 주목해 협력 또는 길항관계에 있는 식민 제세력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리얼하게 묘사하였다. 단, '식민지공공성'을 포함한 그의 '植民地近代' 개념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조선의 재래 수리시설은 식민지기를 전후해 수리조합의 창설과정을 둘러싸고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조선후기 이래 농민 간의 자치단체로서 각종 水利契(洑契, 堤堰契)가 전통 수도작 灌漑기술을 한층 진전시켰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도 일정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즉, 19세기까지 농민 간의 洑灌漑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堤堰灌漑는 일정한 기술적·재정적 한계를 노출하였다.[11] 식민지기에 들어서 구래의 廢堤堰은

---

7) 李圭洙, 1996, 『近代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と農民運動』, 信山社.

8) 淺田喬二, 1968,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龍溪書舍.

9) 이규수, 2007, 『식민지 조선과 일본 일본인』, 다홀미디어 ; Matsumoto, Takenori & Chung, Seung-Jin. 2009, "On the Hosokawa Farm and the History of Daejangchon, a Japanese-style Village in Colonial Korea: Dilemmas in Rural Development." Korea Journal 49-3 ; 정승진, 2012,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 『아세아연구』 150 ; 鄭勝振, 松本武祝, 2013, 「植民地朝鮮の日本人移民農村と同化主義: 全羅北道·大場村里の事例」, 『東アジア近代史研究』 16.

10) 松本武祝, 2005, 앞의 책, 제6장 "수리조합을 둘러싼 '공공성'의 위상: 식민지기 조선의 부평수리조합 사례분석" 및 제7장 "식민지 조선의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질서의 재편: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2008, 「韓國における農業水利組織の改編過程: 公共性と協同の相剋」, 『歷史と經濟』 199.

11) 李光麟, 1961, 『李朝水利史研究』, 韓國研究圖書館 ; 宮島博史, 1983, 「李朝後期

신설 조합에서 대대적으로 改修되어 다시금 용수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조합의 창설을 맞아 용도 폐기되는 운명을 맞고 있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전북 益山郡 소재의 臨益水利組合(이하 臨益水組)은 이같은 두 가지 양상이 결합된, 최초의 근대 수리조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1909년 설립).

익산의 黃登堤는 조선의 '水利王'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郎)에 의해 復舊·改修된 임익수조의 주요 용수원이었다.[12] 그러나 황등제는 改修 20여 년 만에 廢堤化되고, 이에 대체 水源으로서 만경강 상류(高山川)에 庚川貯水池가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수원지를 폐쇄하고 신규 저수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임익수조의 기술적 조건 및 지역사회의 내부 조건은 무엇인가? 신설된 경천저수지는 임익수조뿐 아니라, 기존의 大雅貯水池(익옥수조)와 함께 1941년 합병·신설된 全北水組의 주요 용수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 장기적 전개과정을 시야에 넣은 만경강 일대 농업수리 실태(질서), 나아가 이 100년간의 조선수리조합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외에도 조합설립 초기 황등제의 신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수리조합반대운동, 만경강 주변 '자매' 조합과의 관계, 재래 시설의 개발과 폐기로 함축되었던 수리현대화의 실상 등 해명되어야 할 과제는 수다하다. 일단, 여기서는 전북수조의 초기 형태에 해당하는 임익수조의 사례를 통해, 즉 재래 수원의 복구와 폐쇄, 신규 대체 수원의 '개발'이라는 이 일대의 수리·관개 실태를, 대규모로 또 급격하게 변화된 이 일대의 농업환경(지역사회)을 시야에 넣어 살펴보고자 한다.

の農業水利-堤堰(溜池)灌漑を中心に」, 『東洋史硏究』 41-4 ; 최원규, 1992, 「조선후기 수리기구와 경영문제」, 『국사관논총』 39.

12)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郎)는 익산 일대에 不二興業全北農場 및 臨益水組(1909), 不二沃溝干拓村 및 益沃水組(1920=임익남부+임옥) 등을 창립한 조합장이다. 山下英爾, 『湖南寶庫 裡里案內』, 1915, 78~80쪽. 특히, 不二興業을 중심으로 한 후지이의 개인 성공담은 鎌田白堂, 1936, 『朝鮮の人物と事業 湖南篇 第一輯』, 實業之朝鮮社, 248쪽 참조. 그에 대해서는 『朝鮮土地談』(1911)이라는 자전적 기록도 남아 있다. 不二農場 본점이 있던 五山里의 지역실태에 대해서는 山下英爾, 같은 책, 1915, 154~157쪽 참조.

2. 湖南에서 黃登堤의 위치 : 臨益水組의 前史

일명 허리다리[腰橋堤]라고 알려진 황등제는 김제의 碧骨堤, 정읍(고부)의 訥堤와 함께 '國中三湖' 또는 '湖南三堤'로 알려져 있지만, 오래 전부터 전래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전하는 문헌은 소략한 편이다. "『文獻備考』에 (황등제의 위치가…인용자) '益山在西二十五里'라고 했는데, 당시 익산의 邑治는 현재의 金馬面이었으므로 그 西方 25里의 黃登堤라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으나 그 堤堰名이 일반적으로 腰橋堤라 불리어 왔기 때문에 黃登堤라고 하면 一般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牧民心書』에도 '益山全州之間 黃登堤'라 했고, 『大東輿地圖』에도 분명히 黃登堤로 명시되어 있음을 보면, 哲宗 末葉까지 그대로 전해온 것임을 알 수 있다."[13]

황등(舊 함열)에 소재하는 임익수리조합 사무소(후일, 全北農組 황등출장소)에는 조합에서 황등제를 개축할 당시(1909) 腰橋(허리다리) 지점에서 발굴한 石碑 하나가 보존되어 왔다.[14] 석비의 건립 연대는 乾隆45년(1780), "廢遺된 堤防을 改築하는 役事와 橋梁을 架設하는데 多大한 施主를 한 몇 사람의 恩德을 後世에 龜鑑으로 삼기 위해 化主僧 芝苑이 세웠지 않았는가" 추정되고 있다.[15] 조선후기에 걸쳐 황등제가 "개축"과정을 통해 정상 가동되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료이다. 그러나 상반된 추정도 있다.

"黃登堤가 朝鮮王朝實錄 등 官撰書에도 별로 나오지 않음을 보면 碧骨堤, 訥堤와 같이 前朝 以來로 廢湖된 것을 李朝에 와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것인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李朝末까지 廢堤로 내려오던 것이 … 日人 藤井寬太郎의 의해 開拓되고 數次의 蒙利區域 擴張을 거쳐 十里蘆花不見水라 일컬어오던 堤下 5,000町步의 荒蕪地에 乳脈을 이루어 沃野數十里의 穀倉地帶를 형성해 오다가, 1935년 全州郡(현 완주군) 雲州面에 庚川貯水池가 新設되면서 不用施設이 되어, 이제는 854町步의 堤內地(허

---

13) 全北農地改良組合編, 1978, 『全北農組70年史』, 108~109쪽.

14) 현재 이 石碑의 발굴 터는 이리-황등간 舊 허리다리 지점에 개발·보존되어 오가는 길손을 맞고 있다. 2007년 여름, 현지 답사에 동행해 준 全北大學校 金哲培博士에게 지면을 빌어 사의를 표한다.

15) 全北農地改良組合編, 1978, 같은 책, 110쪽.

리다리안…인용자)마저 開畓耕作되고 있다."[16] 폐제화의 時點을 정확히 비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조선후기에 걸쳐 堤堰의 荒廢化라는 조선 전체의 경향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같은 사실은 '國中三湖'인 벽골제 및 눌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눌제의 경우 19세기 중반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다.[17]

다음의 〈표 1〉은 1920년대 후반 익산군 내 재래 수리시설(堤堰, 洑)을 개황한 것으로서 후술하는 3개소의 수리조합과 함께 익산 지방지에 소개된 것이다. 수리조합의 설립과 함께 현전하는 재래 수리시설의 改·補修 또는 廢棄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20세기 들어서 재래시설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사료이다.

〈표 1〉 益山郡 內 在來 水利施設 실태 (1927년 현재)

種別	旣 修築 (灌漑面積)	未 修築	計
堤堰	20 (458町)	35	55
洑	6 (1,300)	2	8
計	26 (1,758)	37	63

자료: 木原壽, 1928,『益山郡事情』, 43쪽에서 재작성.

1927년 현재 郡 내 적지 않은 재래 수리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상당수는 "未修築"의 堤堰이었다(전체 63개소 중 35개소). 호남지역의 경우 대규모 複合洑가 일반적인 관개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18] 이 때문인지 〈표 1〉에서는 보의 관개면적이 제언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최원규에 따르면, 조선후기 이래 농촌사회에서는 보관개가 제언관개보다 상대적으로 발달하며 廢堤化 경향을 저지하고 있었다.[19] 〈표 1〉에서 "堤堰"은 "未修築"(35개소)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기능불충분' 내지 '기능불능'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19세기 이래 폐제화 경향과 함께 제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16) 全北農地改良組合編, 1978, 같은 책, 109~110쪽.
17) 東津農地改良組合編, 1975,『東津農組50年史』.
18) 남궁봉, 1990,「하천유역일대 간석지상의 간척취락 유형에 관한 연구: 萬頃江·東津江 유역을 사례지역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 최원규, 1992,「조선후기 수리기구와 경영문제」,『국사관논총』 39.

『益山郡誌(1932)』 堤堰條에 따르면, 益山舊誌에 27개소, 礪山舊誌에 12개소, 咸悅舊誌에 26개소, 龍安舊誌에 6개소, 도합 71개소의 堤堰名이 위치 또는 규모와 함께 소개되고 있다. 확실히 여타 지역보다는 많은 수의 재래 제언을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도작지대라고 할 수 있다.[20] 이에 반해서 洑는 7개소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며(〈표 1〉의 수치(8개소)와 비슷한 수준), 당해 시설의 가동 상태(기능불충분 내지 廢堤 여부)는 미상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도 보의 관개면적이 제언의 그것을 큰 차이로 상회하고 있다.[21] 수리조합과 병존하고 있는, 이같은 재래 수리시설의 잔존양상은 이후 토지개량사업의 본격화와 함께 변화·재편의 운명을 맞고 있었다.

20세기 식민지화를 전후해 호남의 재래 수리시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변화 패턴을 연출하였다. 첫째, 沃溝西部水組의 주요 용수원인 米堤는 조합설립(1908) 직전까지 전통 堤堰契에 의해 정상 가동되었다. 여기서는 농민(주로 소작인)간의 자치조직이 건재하고, 收稅 및 賦役·現品에 의해 운영된 기록이 남아 있다. 船堤도 존재하지만, 그 운영 실태는 미상이다.[22] 둘째, 全益水組의 용수원이자 일명 三禮川防으로 알려진 구래의 犢走項洑는 17세기부터 改修·가동된 흔적이 남아 있다.[23] 대규모 복합보로서 전술한 〈표 1〉에서 보의 대규모성을 대변하고 있다. 조합설립 당시(1910) 買收 기록과 함께 改修工事 상의 저렴함이 인상적이다.[24] 셋째, 임익수조의 용수원인 舊황등제(腰橋堤)의 경우, 전술한 미제 및 선제와 비

---

20) 이같은 평가는 영남 등 여타지역과의 비교, 호남지역 내 여타 도작지구(郡縣)와의 비교를 통한 것이다. 宮島博史, 1983, 「李朝後期の農業水利-堤堰(溜池)灌漑を中心に」, 『東洋史研究』 41-4 참조.

21) 蘇祈永, 1932, 『益山郡誌(上下)』, 「堤堰條(附防洑)」. 대규모 복합보의 경우 그 관개면적이 300町步 또는 600정보를 넘기도 한다. 반면, 제언의 관개면적은 100정보(또는 50정보) 弱이 일반적이었다.

22) 정승진, 2009, 「한말 일제초 전통 제언계의 근대적 수리조합으로의 전환: 만경강 하류 옥구서부수리조합의 사례분석」, 『전북사학』 34. 米堤堤堰契 史料는 李光麟, 1961, 『李朝水利史研究』, 韓國研究圖書館에 수록.

23) 남궁봉, 1990, 「하천유역일대 간석지상의 간척취락 유형에 관한 연구: 萬頃江·東津江 유역을 사례지역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4) 정승진, 2009, 「일제시대 전익수리조합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농촌경제』 31-6.

교하면 "기능불능" 상태(廢堤堰)에 가까웠으며, 東津水組의 벽골제와 유사한 상황(폐제화)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벽골제나 눌제(고부수조)는 조합창설 당시 완전 폐쇄된 반면, 황등제는 대대적으로 복구·개수되어 임익수조의 주요 용수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거액의 사업비를 동반한 사실상의 신설공사였다. 반면, 미제 및 선제는 水源형태가 다르지만 독수항보와 매우 유사한 상황 즉, '기능불충분' 상태에 약간의 改修工事만을 경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소규모 설치공사비 발생).

'國中三湖'이자 '湖南三堤'인 黃登堤가 소재하는 益山郡은, 전북의 沃溝(群山), 全州(完州), 金堤, 井邑, 扶安 및 충남의 舒川, 도합 7郡(1府)과 함께 全北 平野部 稻作地區에 위치한다. 이른바 水利組合地區이다. 호남평야라고 불리는 이 일대는 "古來 有名한 '內浦의 平野'의 一部를 이루는 곳으로 …… 이 평야는 錦江, 萬頃江 및 東津江의 三江에 의해 潤澤하고, 朝鮮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進步한 主要 稻作地帶"이다. "이 지역은 萬頃·東津의 2大 河川이 마주보고 흐르는 곳으로, 그 중심을 이루는 全州平野는 비교적 灌漑의 便宜를 具備하고 地味 또한 肥沃한 屈指의 米產地이다. … 극단적으로 米作에 偏重하고……" 라고 하여 조선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서 식민초기부터 일제의 관심이 집중된 지역이었다.[25] 식민지화 이래 구래의 여산, 함열, 용안의 3개 郡을 합병해 '巨邑'을 이룬 익산군은 이러한 호남평야의 북부(만경강) 일대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남부의 거점은 동진강 일대의 김제). 호남선의 개통(1912)과 함께 신흥 식민도시로 부상한 裡里는 이후 만경강 일대의 토지개량사업(주로 수리조합사업), 만경강치수사업 등 지역의 '개발'사업을 관장하였다.[26]

전라북도 지방지(1928)에 따르면, 水利組合은 道地方費, 府·郡, 面, 學校費, 學校組合과 함께 6大 주요 公共團體 가운데 하나였다.[27] 따라서 官(道·郡·面)과의 긴밀한 유착은 필지의 사실이었다. 각종 행정적 편의와 재정적 지원이 가세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식민지 지역사회에는 상기 6개

25) 이상, 久間健一, 1946, 『朝鮮農業經營地帶の硏究』, 農業總合硏究刊行會, 205~207쪽.
26) 정승진, 2012,「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 『아세아연구』 150.
27) 全羅北道, 1928, 『全羅北道要覽』, 1~6쪽.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지방 단체로서 帝國在鄕軍人會(支所), 消防組, 각종 靑年團體, 敎會·神社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의 공공단체 이외에, 철도역사, 우편소, 금융조합, 농업단체(勸農機關), 상업회의소, 경찰(지)서, 위생조합, 소방조, 제국재향군인회 등 다양한 지방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난립하였다. 이 가운데 수리조합은 지역의 '개발' 사업(project)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김제지역의 경우 東津水組의 창설은 지역'개발'에 거의 결정적 계기였다.

1928년 현재 전북에는 沃溝西部(1908년, 473町), 臨益(1909년, 3,590町), 全益(1910년, 1,445町), 益沃(1920년, 9,720町), 東津(1925년, 15,182町) 등 도합 8개소의 수리조합이 설립·운영되었다.[28] 대체로 만경강 및 동진강 연안의 전북 평야부 도작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인 대지주 밀집지대로서 일찍부터 군산을 통해 일본인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지역사회의 유력자로 부상한 일본인 대지주들은 수리조합의 추진주체(조합장, 평의원 등)로 나서는 등 지역의 '개발'사업을 주도하였다. 후지이 간타로에 의해 설립된 임익수조는 설립 당시 조선 최대의 사업구역을 기록하며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의 嚆矢를 이루었다.[29] 이후 益沃水組, 全北水組, 東津水組 등의 합병과정에서 모범사례가 되었다.

호남의 한 지방지는 임익수조를 1929년 현재 道내 4대 水組(益沃, 臨益, 東津, 古阜) 가운데 하나로 그 '개발상'에 주목하였다.[30] 임익수조는 식민초기 호남선의 개통, 식민도시 裡里의 건설과 함께 익산군 내 3대 '개발' 사업의 하나로 대대적으로 선전되기도 했다.[31] 호남 지역사회에서 수리문제가 농업 및 여타 산업문제 보다 선행하는 주요 현안이었음은, 당시의 지방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익산군 내 소재하는 臨益南部, 臨益, 全益의 3개 水組를 개황하면 다음과 같다.[32] 1909년 2월 認可된 임익수조(황등에 사무소)는 1910년 황등제를 기공해 1911년 5월 준공하였다. 거액의 사업비가 全州農工銀行으로부

---

28) 全羅北道, 1928, 『全羅北道要覽』, 50~54쪽.

29) 후대의 益山郡誌에서는 "現 全北 農地改良組合의 嚆矢가 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益山郡, 1981, 『益山郡誌』, 圓光社, 345쪽. 이러한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은 이후 한국현대 수리관개의 주류적 유형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영훈, 장시원, 宮島博史, 松本武祝, 1992,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제1장 참조.

30) 宇津木初三郎, 1929, 『朝鮮の寶庫, 全羅北道發展史』.

31)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內』.

32) 山下英爾, 1915, 같은 책, 74~82쪽.

터의 借入(20만원, 15개년 상환)되었다. 설치공사의 관건은 황등제의 복구·개수와 飛飛亭 導水路의 引水에 있었다. 조합장은 후지이 간타로이며, 同조합은 1915년 총독부시정5주년기념 朝鮮物産共進會에서 模範 水利組合으로 선정되고 1929년 朝鮮博覽會에서도 수상하였다. 임익남부수조(1910년 2월 認可, 裡里에 사무소)는 인근 옥구의 臨沃水組와 함께 독자의 용수원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임익수조 등과 飛飛亭導水路를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1911~1914년간 설치공사가 시행되었고, 사업비는 東拓으로부터 起債(15개년 상환)로 조달했다. 조합장은 군산(옥구)의 대지주 大倉米吉(大木安之助의 후임)이었다. 전익수조(1910년 1월 認可, 大場村에 사무소)는 全州農工銀行으로부터 차입해 재래 洑(독주항보)를 改修하였는데, 전술한 옥구서부수조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만이 소요되었다. 조합장은 細川農場의 지배인인 黑田二平이었다.

익산군은 인근의 옥구(군산), 김제와 마찬가지로 소작제 대농장뿐 아니라 日人 移民村이 식민초기부터 발달하였다. 이러한 직접 식민통치하에서의 이민자사회를 '定住植民地(Settler Colony)'라 이른다.[33] 不二農場이 소재하는 五山面에는 일반 이민과 함께 "東拓移民"도 다수 거주하였는데(104戶/201戶), 郡 전체의 51.7%가 여기에 집중되었다.[34] 익산(이리)은 東拓의 전북지점이 소재하는 조선 8대 지점 가운데 하나였다.[35] 특히, 이리의 '근접지'(木川浦, 五山里, 大場村, 黃登 등)에는 일본인 이민촌이 호남선을 따라 散在하였다. 木川浦는 오산학교조합(인근 오산면)의 관할지역으로서 전술한 동척의 이민촌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36] 대장

33) Elkins, Caroline & Susan Pedersen. 2005. Settler Coloni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Routledge.

34) 木原壽, 1928, 『益山郡事情』, 62~63쪽.

35) 河合和男 外, 1999, 『國策會社·東拓の研究』, 不二出版, 151쪽. 1915년 4월 移民規則이 改正됨으로써 기존의 乙種 移民(小作)은 폐지되고(따라서, 集團移民도 폐지) 甲種 移民(自作)은 "제1종 이민"으로 개칭되었다. 신설된 "제2종 이민"은 소작경영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地主化를 겨냥하였다. 이같은 規則 改正은 '內地'의 이주 대상자를 "농촌에 거주하는 中流 이상의 子弟로 農業學校 卒業者의 상당지식을 갖추고, 자산 및 경험을 가진 견실한 농업자"로 한정함으로써 당초의 이민 구상(자소작농 중심)을 필연적으로 지주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동, 148~149쪽.

촌의 경우 細川農場의 주도 하에 "自作農的 移民(=갑종, 제1종)을 招致해" 模範的 移民村을 구축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37] 이같은 이민촌은 일본인 주도의 수조사업에 중요한 인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3. 黃登堤의 復舊 : 1909년 臨益水組의 창설과정

〈그림 1〉 임익수리조합구역 내 황등제 개황도
출전: 臨益水利組合編,『臨益水利組合關係書類』, 1911.

다음의 〈그림 1〉은 임익수조에서 현재의 黃登(익산 북서향 5km) 부근에 소재하던 폐제언인 황등제를 신규 용수원(=저수지)으로 개수하기 위해 작성한 계획도이다. 지도 상으로는 왼쪽이 북쪽이며, 중앙부는 훼손된

36) "東洋拓植株式會社는 此地(木川浦)에 小作의 收納所를 두고, 數萬斗落의 社有地를 管理하고, 또 附近에 散在하는 內地移民의 保護監督을…"라는 言說이 보인다. 山下英爾, 1915,『湖南寶庫 裡里案內』, 150쪽.

37) 정승진, 마쯔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 2005,「영주에서 식민지대지주로 : 일본 귀족 호소카와(細川)가의 한국에서의 토지집적」,『역사비평』73; 鄭勝振, 松本武祝, 2013,「植民地朝鮮の日本人移民農村と同化主義: 全羅北道·大場村里の事例」,『東アジア近代史研究』16.

상태이다. 오른쪽의 굵은 검은 색 부분이 萬頃江이다. 그 동북향으로 신흥 타운인 裡里가 있고 그 북향에 황등 읍내가 위치한다. 지도 상에서 좌측 상단의 "貯水線內"라고 부기된 곳이 1911년 5월 改築된 황등제이다. 동 저수지를 남북으로 '막음'한 堤塘이 舊황등제의 '허리다리' 부근인데, 1936년 廢堤 이후 지금까지 이리-황등 간 지방국도로 사용되고 있다.

복구·개수된 황등제는 舊함열, 舊임피, 익산의 3개 郡에 대한 용수원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조합의 최초 명칭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三郡水利組合"이었다. 이후 계획변경 과정에서 "臨陂中部水利組合"으로 개칭되었다가, 設立認可 당시 "임익수리조합"으로 정착하였다.[38]

임익수조가 소재하는 〈그림 1〉의 이른바 沃溝平野는 "全羅北道 가운데 가장 灌漑水利의 荒廢가 絶極한 地方이온데 旣往 數年間 旱害를 받아 收穫이 全無해 所在住民의 窮乏은 거의 難以名狀인지라"라고 하여 사업 이전의 참상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구래의 황등제는 "全然 堤防이 決壞하여 地底는 모두 冒耕됨으로써……非常한 旱魃을 惹起하고…人民의 疲弊와 貧困이 極에 達해 流亡하기에 이르러…全村 거의 廢滅…慘憺한 光景…"이라 하여, 지역 농촌농업의 황폐화를 배경으로 대규모 수리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구하고 있다.[39] 1909년 2월 度支部로부터 認可된 임익수조는 구래 황등제의 復舊·改修, 水門 및 水路 築造, 飛飛亭導水路로부터의 引水施設 등에 설치공사의 역점을 두었다.[40] 황등제의 복구에는 당해 토지를 收用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용지매수보상비가 지출됨으로써 사업비(주로 공사비)는 한층 증대하였다. 이를 둘러싼 조선인의 반대운동도 발생하였다.[41] 설치사업비 가운데 액수가 큰 費目만을 나열하면, 堤堰

---

38) "임피중부수리조합"이라는 용례는 臨益水利組合, 1911, 『臨益水利組合關係書類』 중 「技術員派遣ニ關スル件」에 의거한다. 1909년 "계획변경"에 따라 舊함열군이 조합구역에서 제외되면서(동시에 조합규약이 변경되면서) '三郡水利組合'이라는 명칭은 폐기되었다.

39) 이상, 臨益水利組合, 1911, 『臨益水利組合關係書類』 중 「水利組合設立ニ關スル件」에서 인용.

40) 臨益水利組合, 1911, 『臨益水利組合關係書類』 중 「臨益水利組合規約認可ノ件」. 조합규약의 제27조는 "…조합원에 대하여 夫役現品을 부과하며 또 土地를 收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당해 시설의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41) 組合貯水池敷地買收價, 損害賠償費 등을 둘러싸고 당해 지역 주민(주로 조선인

築造費 21,995원, 導水路(掘鑿)費 21,686원, 水路土工費 27,342원, 貯水池內土地買收費 31,900원, 引水路買收費 31,220원 등이다.[42] 더구나 공사도중(1910년 7월) "稀有의 大雨"를 만나 假堤堰이 破壞되는 등 거액의 수해복구공사비가 추가로 지출되었다(損害額은 약 30만원).[43]

〈표 2〉 익산군 내 수리조합 일람 (1927년 현재) (단위: 町步, 円, 石)

組合名	設立年月	蒙利面積	設置事業費	反當組合費	反當收穫高	
					設立當時	現在
臨益水組	1909.02	3,590	204,087	3.5	1.60	3.05
全益水組	1910.11	1,445	12,495	0.4	1.85	2.45
益沃水組	1920.02	9,720	5,405,869	6.4	0.52	2.52

자료: 木原壽, 1928, 『益山郡事情』, 44쪽.

주: 臨益水組는 1920년 임익남부(1909) 및 임옥(1911) 수조가 합병되어 설립된 것임.

창설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고위성은 다음의 〈표 2〉를 통해 용이하게 관측할 수 있다. 조합면적(=몽리면적)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임익수조의 설치사업비(204,087円)는 전익수조의 그것(12,495円)을 15배 이상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결국 구래 황등제의 복구 및 개수는 사실상의 신설공사였음을 〈표 2〉는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창설과정 시 사업비의 고위성은 이후 조합 재정을 압박하고, 조합비부담의 과중성을 노정하였다(단보당 3.5円). 이같은 무리한 설치공사는 1920년 익옥수조의 창설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두 조합의 조합장은 후지이 간타로였다. 한편, 조합설립 이후 수확실적(=反當收穫高)은 양호한 듯 보이지만, 과연 '不良' 해진 財政상황을 어느 정도나 타개해나갈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다음의 〈표 3〉은 익산군 내 상기 3개 조합의 민족별 토지소유관계를

지주)들에 의한 진정·청원이 수리조합반대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조합당국에서는 東洋拓植株式會社로부터 약 9만여 円의 추가적인 起債를 동원하게 된다. 全北農地改良組合編, 1978, 『全北農組70年史』, 116~118쪽.

42) 臨益水利組合, 1911, 『臨益水利組合關係書類』 중 「水利組合決算及工程報告ニ關スル件」.

43) 臨益水利組合, 1911, 『臨益水利組合關係書類』 중 「臨益水利組合水害狀況ニ關スル件」, 「水害狀況報告書」. 이후 조합에서는 한호농공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起債(약 6만여 円)를 행하고 있었다.

1927년 시점에서 개황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것은 수리조합지구의 소유실태임에도 불구하고, 익산군의 전체 경향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싶다.[44] 이는 수조지구의 소유관계가 군 전체의 경향을 사실상 주도했던 당연한 결과에 기인한다.

〈표 3〉 수리조합구역 내 토지소유실태 (1927년 현재) (단위: 町步, 人)

組合名	日本人		朝鮮人		其他法人		合計	
	面積	人數	面積	人數	面積	人數	面積	人數
臨益水組	1,354	(146)	711	(512)	1,524	(11)	3,590	(669)
全益水組	1,003	(56)	436	(145)	5	(2)	1,445	(203)
益沃水組	8,341	(345)	1,153	(1,423)	225	(12)	9,720	(1,780)

자료: 木原壽, 1928, 『益山郡事情』, 43쪽.

상기 3개 수조구역 내 일본인(지주)의 토지소유(面積)는 압도적인 가운데, 임익수조는 "其他法人"의 소유(의 고위)가 상대적으로 인상적이다. 대체로 (株)東拓이나 (株)不二興業과 같은 일본계 법인으로 추정된다.[45] 익산 일대는 군산(옥구 포함), 김제 등과 함께 일본인 지주의 밀집지대로서 일본인 유력지주가 지역사회의 '草分者'(=有志)를 자처하며 조합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리조합의 단체적 속성 즉, 관변측 지주단체로서의 성격도 추론 가능하다.

일제시대 수리조합의 재정구조는 歲入의 경우 조합비, 조합채(起債), 국고보조금 등으로, 歲出은 유지관리비(경상비), 조합채(상환)비, (임시)사업비 등으로 구성되는 비영리회계를 취하고 있다.[46] 조합의 세입-세출 구

44) 익산군 내 황등면 인근의 春浦面에서 유사한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승진, 2004, 「식민지지주제의 동향(1914~1945): 전북 『益山郡春浦面土地臺帳』의 분석」, 『한국경제연구』 12 참조.

45) 당시 익산 일대에는 다음과 같은 日人 農場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자금력이 풍부한 대규모 농장들은 法人으로 轉換되고 있었다. 大橋農場(이리, 1907), 森谷農場(옥구 서수면, 1906), 岡崎商會農場(목천포, 1900), 眞田農場(오산면, 1903), 櫻井農場(오산면, 1913), 片桐農場(황등면, 1907), 島谷農場(옥구 개정면, 1910), 川崎農場(옥구 서수면, 1905), 楠田農場(옥구 서수면, 1904) 등(괄호안은 所在地, 創業年度).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內』, 89~101쪽.

조는 크게 조합의 창설기와 이후 안정기로 나뉘어 상이한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창설기에는 조합채(起債)와 국고보조금이, 이후 안정기에 들어서면 조합비가 세입의 주요 계정으로 등장한다. 세출의 경우 창설기에는 사업비(주로 설치공사비)의 수준이 높다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조합채상환비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다. 따라서 조합이 창설과정을 거쳐 정상궤도에 들어서면, 조합비(세입부)가 조합채상환비(세출부)를 상쇄할 수 있는가에 조합재정의 건전성이 결정된다. 이 조합건전성은 지역 '개발'(또는 景氣동향)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하중으로 작용하였다. 조합은 구역 내의 농민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가로 조합비를 징수하였는데, 조합비(실질)부담은 조합의 '財政健全性'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표이기도 했다(優良인가, 不良인가).

〈표 4-1〉 익산 내 수리조합의 예산(歲入部) (1915년 현재) (단위: 円)

組合名	組合費	財産收入	雜收入	組合債	繰越金	歲入計
臨益水組	56,940		6,000	73,000	12,000	147,940
臨益南部水組	64,816		200			65,016
全益水組	4,750	36	755		4,000	9,541

자료: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內』, 82쪽.

〈표 4-2〉 익산 내 수리조합의 예산(歲出部) (1915년 현재) (단위: 円)

組合名	事務所費	事業費	豫備費	公債費	雜支出	繰越金	歲出計
臨益水組	10,788	79,069	854	46,168	1,106		147,940
臨益南部水組	8,373	5,000	911	50,732			65,016
全益水組	1,028	1,084	200	2,420	92	4,716	9,541

자료: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內』, 82쪽.

다음의 〈표 4〉와 〈표 5〉를 비교하면, 1915~1927년간 임익수조의 예산 총액은 147,000엔 대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915년 단계에서 조합운영은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표 4-1〉과 〈표 4-2〉를 통

46) 식민지기 수리조합의 재정구조에 대해서는 장시원, 1992, 「부평수리조합의 재정구조」, 이영훈外,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참조.

해 1915년 당시 同조합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조합채상환비(公債費)의 부담 위에 거액의 사업비(79,069엔)가 조합재정을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組合債(73,000엔)가 발행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창설된 臨益南部나 全益水組와는 상이한 재정구조이다. 1910년의 수해복구비와 거액의 용지매수보상비가 1915년 단계까지도 조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47] 문제는 조합창설 과정에서의 무리한 설치공사에 있었다.

〈표 5-1〉 익산 내 수리조합의 예산(歲入部) (1927년 현재) (단위: 円)

組合名	經常部		臨時部			歲入計
	組合費	其他收入	組合債	國庫補助金	其他收入	
臨益水組	119,169	4,467		8,879	14,707	147,222
全益水組	5,200	598			5,532	11,330
益沃水組	596,480	14,029	40,000	3,526	28,024	682,059

자료: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 1927,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50쪽.

〈표 5-2〉 익산 내 수리조합의 예산(歲出部) (1927년 현재) (단위: 円)

組合名	經常部		臨時部			歲出計
	維持管理費	其他支出	組合債費	事業費	其他支出	
臨益水組	30,586	10,919	66,726	37,131	1,860	147,222
全益水組	8,146	922			2,262	11,330
益沃水組	88,122	26,235	515,774	41,898	10,030	682,059

자료: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 1927,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51쪽.

1927년『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이하,『要覽』)의 〈水利組合歲入歲出決算表〉에 따르면, 〈표 5-1〉의 임익수조의 세입총액은 147,222엔에서 155,523엔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경상부와 임시부의 "기타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세출(결산)총액은 132,966엔으로 예산액(〈표 5-2〉)보다 15,000엔 가량 감소하였는데, 경상부의 "기타지출"과 임시부의 "사업비"의 감소에 기인한다.[48] 이와 같이 수조의 예산액과 결산액 간에는

47) 임익수조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漢湖農工銀行 및 東洋拓植株式會社로부터 추가적인 기채를 발행하고 있었다. 全北農地改良組合編, 1978, 『全北農組70年史』, 123~125쪽.

10% 전후한 오차가 발생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1927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세입부에서의 組合債 즉, 起債 발행이 중지되었다. 반면, 조합비는 1915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면서(56,940→119,169円) 주요한 세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안정기의 전형적인 세입구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세출부에서는 사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합채비(66,726円)가 주요한 지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업비의 저위성은 조합의 지출요인을 낮추는 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임익수조의 결산액을 상기하면, 세입총액은 155,523엔, 세출총액은 132,966엔으로, 12,000엔 이상의 歲計剩餘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체로 1927년 단계에 들어서면 임익수조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립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안정적인 조합비 수입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49] 그러나 전술한 조합비의 실질부담률을 고려하면, 여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1927년 임익수조의 同비율은 18.7%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옥구서부수조 7.7%, 전익수조 4.7%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더구나 1930년대 전반 昭和恐慌期에 들어서면 임익수조의 조합비실질부담률은 최고 30%까지 상승하였다. 동 수치가 8% 대로 안정화되는 것은 공황이 끝나는 1934년에 들어서부터였다.[50]

임익수조는 1931년까지 전주농공은행, 동척 등으로부터 차입한 起債를 모두 상환하였다.[51] 전술한 15년 균등분할상환(계획)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소화공황이 끝나는 1934년부터 조합재정은 상대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임익수조는 새로운 수리사업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것은 1911년에 준공한 황등제를 폐쇄하고 신규 용수원으로

---

48)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編, 1927,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58~59쪽.

49) 안정적인 조합비 수입은 조합설립(=황등제복구) 이후 구역 내 高收穫基調(〈표 3〉의 反當收穫高에서 보는 3石 이상의 고수확기조)가 계획대로 완수되었음을 의미한다.

50) 정승진, 2009, 「한말 일제초 전통 제언계의 근대적 수리조합으로의 전환: 만경강 하류 옥구서부수리조합의 사례분석」, 『전북사학』 34, 141쪽의 〈부표 1〉 참조.

51)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編, 1927~41,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同요람의 〈水利組合歲入歲出決算表〉에는 1932년부터 임익수조의 조합채(상환)비가 등장하지 않는다.

서 만경강 상류(高山川)에 庚川貯水池를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project)이었다.

4. 益山 黃登堤의 廢堤化 : 庚川貯水池의 新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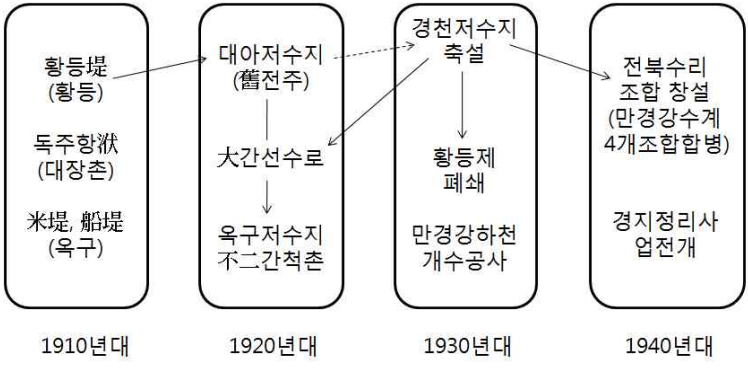
1908~11년간 만경강 일대에 옥구서부, 임익, 임익남부, 전익, 임옥 水組가 축차 설립되었지만, 옥구서부(미제, 선제), 임익(황등제), 전익(독주항보) 수조만이 독자적 水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平底型 貯水池라는 황등제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52] 임익수조 또한 임익남부, 임옥 수조와 마찬가지로 만경강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각 조합은 三禮의 飛飛亭導水路를 공동으로 이용해야하는 용수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따라서 조합 간 용수공급을 둘러싼 교섭·합의는 조합의 주요한 현안이었다. 松本武祝에 따르면, 자체 용수원을 결여했던 3개 조합은 비비정의 引水시설(取入口)을 관할하던 전익수조와 또 인근 조합과 分水契約을 체결해야 했다.[53] 1909년 11월 전익과 임옥 수조 간에, 1910년 6월 임익남부와 임옥 수조 간에, 1911년 2월 임익과 임익남부 수조 간에, 1913년 임익남부와 전익 수조 간에 '分水承諾書' 내지 '覺書'가 체결되었다. 주요한 계약내용은 삼례(비비정)에서 취입한 농업용수를 동절기에 한해 교대로 배급한다는 사실과 引水시설(도수로 포함)의 공동관리 및 비용분담에 관한 문제였다. 이같은 용수부족을 둘러싼 지역문제는 이후 益沃(=임익남부+임옥)수조의 大雅貯水池 신설(20년대 초)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渴水期의 用水難과 이에 대한 합의도출은 여전히 지역 문제로 상존하

52) 平底型 貯水池라는 용례는 宮島博史, 1983, 「李朝後期の農業水利-堤堰(溜池)灌漑を中心に」, 『東洋史硏究』 41-4 에 의거한다. 호남의 평저형 저수지는 영남의 山谷型 貯水池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후자에 비해 水深이 낮아 담수량이 적고(담수면적이 넓어 증발량도 많다), 상류로부터 토사퇴적이 빈발해 주기적으로 浚渫해야 하는 유지관리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산곡형 저수지는 지정학적으로 산간구릉이 발달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地積을 몽리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규모 상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53) 松本武祝, 2005, 『朝鮮農村の〈植民地近代〉經驗』, 社會評論社, 제7장 참조.

고 있었다.

1920년대부터 만경강 일대에서는 益沃水組라는 1만 정보에 달하는 초대형 수리조합이 등장함으로써 지역의 수리질서가 변동·재편되고 있었다. 이러한 수리질서의 재편은 향후 1941년 全北水組(=옥수서부+임익+전익+익옥)를 통해 만경강 水系를 일원적으로 통합하려는 대단위 합병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1940년 익옥수조를 중심으로 옥구서부, 임익, 전익의 4개 조합이 합병될 즈음,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言說이 엿보인다. "沃溝西部水利組合을 제외한 3개 조합(임익, 전익, 익옥…인용자)의 水源은 高山川 지역의 同一 水系에 속하여 同一水路를 이용하는 등 密接한 關係에 있으나, 用水가 不足할 때에는 자연 分水하는 데 紛議가 생겨 조합을 運營함에 支障이 적지 않았다. … 이 기회에 水利組合의 分立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弊害를 除去하고 水利의 合理化를 도모하기 위해 前記 4개 組合을 합병하여 新規 强力한 單一組合을 設立하고자 認可를 申請함에 이르렀으니……"라고 하여, 여전히 조합간 농업용수의 공동이용을 둘러싼 "紛議"(문제)가 상존해 전북수조로의 합병에 대한 주요 근거로 지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54] 요컨대, 1910년 전후 5개 수조가 축차 설립되고 1920년 익옥수조가 합병·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부족과 한발의 위협은 여전히 지역 농업·수리의 현안문제로 남아 있었다.



〈그림 2〉 만경강 유역 지역내 수리연쇄 메카니즘

54) 全北農地改良組合編, 1978, 『全北農組70年史』, 368쪽.

다음의 〈그림 2〉는 황등제의 복구·폐쇄 및 경천지의 신설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식민지 전기간에 걸쳐 만경강 일대 조합 간 수리연쇄 메카니즘을 제시한 것이다. 1920년 익옥수조의 합병·창설은 지역 내 수리질서의 재편과 관련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는데, 그 추진주체는 임익수조의 조합장이었던 후지이 간타로였다.[55] 그는 익산(五山面, 黃登面)에서의 '개발'경험(不二全北農場 및 臨益水組의 창설)을 바탕으로 1만 정보에 달하는 대규모 수조설치를 계획하였다. 여기서는 주요용수원인 大雅貯水池의 축설, 大幹線水路를 통한 구역 내 수리 안정화, 옥구 간척촌(不二沃溝農場)의 '拓植' 등을 도모했는데, 그 '개발'방식은 전술한 황등제의 사례와 유사한 그것이었다.[56] 후지이는 조합창립위원장이자 초대 조합장으로서 임익남부의 조합장인 大倉米吉, 임옥의 宮崎佳太郎 등과 함께 익옥수조라는 일본 '內地'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을 식민지 호남(지역사회)에 전시(display)하였다. 이는 1910년대와는 상이한 1920년대의 전형적인 '개발' 풍경으로서, 전국적 규모에서의 産米增殖計劃(1920~34)과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었다. 1910년대 소극적 수준의 토지개량 시책(=旣存施設의 維持·補修)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57]

전술한 바와 같이, 임익수조에서는 1931년 말 15년간의 조합채(起債) 상환을 완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昭和恐慌(1929~33)이 잦아들면서 일시적이나마 재정상태의 호전을 경험하였다. 임익과 익옥 수조의 조합장이었던 후지이 간타로는 수조지구 내 용수부족과 한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당시의 好景氣에 편승해 경천저수지의 신설과 황등제의 폐쇄를 전격적으로

55) 식민지기 만경강 일대 수리조합의 합병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사정리는 정승진, 2009, 「한국근현대 농업수리질서의 장기적 재편과정(1908~1973): 만경강유역 전북수리조합의 합병 사례분석」, 『韓國經濟硏究』 26 참조.

56) 이같은 후지이의 '개발'방식은 이규수가 언급한 '未墾地型地主'의 전형적인 투자패턴으로서(일종의 冒險資本) 평북 용천군의 大正水組(1914년, 7,634町) 및 강원 철원군의 中央水組(1922년, 9,270町)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編, 1927,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4~19쪽. 거기서도 대규모 수조사업을 가능케 한 소작제 대농장과 이민촌이 형성되었는데, 익산 및 옥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리조합과 소작제 농장은 정확히 하나의 세트(set)를 이루어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이 시너지효과를 산출하는 구도였다.

57) 松本武祝, 1991, 『植民地期朝鮮の水利組合事業』, 未來社.

단행하였다. 만경강 상류(고산천)의 "庚川貯水池 新設工事에 對하여 (총독부) 당국의 認可(1933년 5월…인용자)를 얻은 臨益水利組合에서는 1933年 6月 20日 起工, 1937年 12月 21日에 完工을 보았다."[58] 경천지의 농업용수는 익옥수조의 대간선수로를 통해 조합구역 내로 引入되는 구조였다. 경천지의 신설에 이어서 황등제의 폐쇄, 堤內地(800町步 强)에 대한 간척공사(開墾作畓), 換地교부 등이 1936년 말까지 시행되었다.[59] 과연 누가 800여 정보의 '米畓'(=舊堤內地)를 불하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일대에서 대단위의 '덩어리 땅'을 불하받을 수 있는 자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천지의 신설을 위해 어떠한 토지가 수용(수몰)되었는가는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 해답은 전술한 1910년의 '수리조합반대운동'(=진정·청원)과 관련된다.[60] 반대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고산천 상류에 '沃畓'을 소유한 조선인 재촌 중소지주 및 중소토지소유자들이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다시금 황등제 복구·개수 당시(1910), 거액의 설치공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규모 설치공사를 수반한 대체 水源의 모색은, 1911년까지 거액의 설치사업비(20만 円 强)를 투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등제가 여전히 사실상의 '기능불충분'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황등지는 복구공사 이후에도 여전히 平底型 貯水池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임익수조의 설치공사가 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모험적인 사업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황등제는 만성적인 수원 부족으로 인해 한해 극복에 취약했으며, 시설관리와 유지·보수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김제의 벽골제나 정읍(고부)의 눌제처럼 기능불능의 舊제언을 폐쇄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보다 합리적인 결정임을 시사하고 있다.[61] 한편, 황등제 신축 당시

58) 全北農地改良組合編, 1978, 『全北農組70年史』, 142쪽.

59) 臨益水利組合, 1936, 『臨益水利組合腰橋湖開畓工事施行認可書』 ; 1936, 『臨益水利組合腰橋湖干拓工事開畓設計變更認可圖』 ; 1936, 『臨益水利組合腰橋湖干拓工事開畓竣工圖』.

60) 이에 대한 단편 사례로 이애숙, 1985, 앞의 논문 ; 徐承甲, 1991, 앞의 논문 ; 박수현, 2002, 앞의 논문 참조.

61) 東津農地改良組合編, 1975, 『東津農組50年史』. 동진수조와 고부수조 공히, 舊제언의 상류 지점에 신규 용수원(=저수지)을 모색하고 있었다.

거액의 사업비는 불과 20여년 만에 사실상의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소멸되고, 이후 거액의 경천지 축설비와 함께 조합재정의 '非건전성'과 조합비부담의 과중성을 초래하였다. 요컨대, 경천지의 신설에 의해 황등지의 복구 프로젝트는 불합리하고 무모한 사업으로 판명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황등제의 실패는 1920년대 대아저수지(대간선수로)의 축설, 특히 1930년대 경천저수지의 신설, 이후 1940년대 전북수조로의 합병·창설 과정 속에서 철저히 은폐되었다. 이러한 실패한 프로젝트는 식민자에 의해 이 일대(만경강 유역)가 농민 삶의 현장(=지역사회)이 아니라 개척해야 할 하나의 '사회적 실험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未墾地型 地主(=모험자본)'로서 후지이 간타로는 조선 내 4개의 사업지 가운데 최소한 익산지역에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실패는 은폐되고 성공만이 선전되었다. 식민자의 프로젝트는 이처럼 지배의 정당성('문명화', '개발을 통한 同化')으로 대대적으로 전시되었다가, 황등지의 遺墟地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곤 했다.[62]

1920년대 익옥수조의 대아지, 1930년대 임익수조의 경천지 등 대규모 수리사업은 1925년부터 개시된 萬頃江改修工事와 동시병진하고 있었다. 만경강은 총독부의 제1호 직할하천으로 지정되었다(국고보조 동반). 1930년대 들어서 同공사는 만경강의 전 유역으로 확대되면서 전기의 수리조합사업(=토지개량)과 결합해 수해예방, 고수확기조의 확립, 水組財政의 건전화 등 일정한 성과를 산출하기도 했다. 한편, 만경강 유역의 수조지구는 1920년대 중반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耕地整理事業이 개시된, 전국적 레벨에서 효시를 이루는 '모범적' 경작지대였다. 임익수조의 경우 1937~39년간 조합내 전구역에 걸쳐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63] 그러나 1940년대 전반 戰時期의 영향 하에 대규모 '개발'사업은 축소 내지 중지되고, 이 시기의 거의 유일한 토지개량사업으로 남게 되었다. 대체로, 만경강 일대의 사례는 수리사업(토지개량사업)이 치수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을 촉발해 이 3자가 시너지효과를 산출하는 농업인프라 '개발'에

62) 이 글에서 사용하는 사업(project), 전시(display)라는 개념은 에드워드 사이드(Said, Edward.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Vintage Books)에 의거한다.
63) 全北農地改良組合編, 1978, 『全北農組70年史』, 111쪽.

있어서 모델 케이스였다.[64] 이러한 사실은 같은 호남평야 내에서도 동진강 일대에서는 볼 수 없는 지역적 특질이었다. 그러나, 만경강 일대의 대단위 '개발'과정 속에서 황등지의 폐쇄는 용이하게 은폐되고 있었다.

1941년 임익수조는 옥구서부, 전익, 임익 수조와 함께 전북수조로 흡수·합병되었다. 조합사무소는 이리 소재 익옥수조의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북수조는 임익수조 이래 익옥수조를 거쳐 만경강 일대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의 계보를 승계하고 있었다. 만경강 水系를 일원적으로 통일하고 부족한 用水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조합창설의 大要였다. 여기서는 1) 1920년 익옥수조의 합병 경험, 2) 1925년 동진수조라는 초대형 조합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 사실 위에, 3) 1939년의 大旱魃, 4) 戰時期 총독부 시정(增米計劃) 등이 맞물려, 水系 전체에 대한 합병이 정책적으로 촉구되었다('一郡一組合原則'). 대체로 조합별 평등주의 합병(원칙)이 천명된 가운데, 재정상태가 건전한 옥구서부, 전익의 兩수조가 大수조에 희생되었다고 평가된다. 해방 이후 전북수조는 1961년, 1973년 두 차례의 합병과정을 경과해 만경강 水系 전체를 완전히 통합하였다.[65]

5. 결론 및 과제

『전북농조70년사』에는 임익수조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총평이 실려 있다. "黃登堤는 日本人이 開拓한 韓國에 있어서의 初期의 水利施設이라는 意味에서 좋건 나쁘건 간에 우리의 土地改良史에서 빼놓을 수 없는 史跡이다. 좋은 意味에서는 韓國의 水利現代化에 先鋒의 炬火를

---

64) 만경강 일대 수리조합사업과 하천개수공사 및 경지정리사업과의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는 정승진, 2009, 「일제시대 전익수리조합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농촌경제』31-6, 93~96쪽 참조. 이같은 사례는 후지이 간타로의 사업괜턴(대농장(=농사개량)과 수리조합(=토지개량) 간의 시너지효과)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65) 홍성찬 외, 2006, 앞의 책, 혜안 : 정승진, 2009,「한국근현대 농업수리질서의 장기적 재편과정(1908~1973): 만경강유역 전북수리조합의 합병사례분석」, 『韓國經濟硏究』 26. 후자의 연구에 따르면, 조합 명칭도 1960년대 土地改良組合, 1970년대 이후 農地改良組合으로 개칭되고, 금세기 들어 公社化 되었다.

들던 곳이며, 나쁘게 말해서는 日本 侵略史의 農業水利部門에 대한 序章이었기 때문이다."[66] 여기에는 당시 집필진의 난처한 입장이 모순된 필치로 노정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拓植'의 역사적 사실과 민족주의에 입각한 자기 검열의 난감한 입장 사이에서 식민지의 '開發史'는 이처럼 표류하면서 미궁에 빠져버렸던 것이다.

이 글은 식민지 지역사회에 있어서 人物과 事業이라는 방법틀 하에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郎)와 같은 식민자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실패한 프로젝트로서 폭로하고 당시의 '개발상'을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호남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개발의 사실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것의 실상을 역사적 사실로 인지할 때야만 비로소 식민지 '개발'의 실패나 성공여부를 말할 수 있다. 그 해답은 식민지 지역사회에 천착하는 지역 연구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하, 이 글에서 도출된 몇 가지 결론을 간략히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부언하고자 한다.

1) 1930년대 중반 신설된 경천저수지에 의해 식민초기 황등지의 복구공사는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로 판명되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1920년대 익옥수조에 의한 대아저수지(대간선수로)의 축설과 1941년 전북수조의 합병·창설이라는 일련의 대규모 사업이 이러한 실패를 은폐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익수조에 의한 황등지사업은 당시 '朝鮮拓植'의 모범사례로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그것은 1910년대 초라는 시기적 타이밍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본격적인 산업정책으로서 산미증식계획이 1920년대에 시행되었음을 고려하면, 만경강 일대의 대규모 수조사업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행된 대규모 토지개량사업이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만경강 일대에 이른 시기부터 진출한 식민자(의 존재형태)와 이들이 일본 '內地'에서 경험한 地方改良運動(1901~1918)을 호남사회에 조기에 이식했던 사실(행위패턴)에 주목하고 있다.

2) 조선의 '水利王'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郎)에 대해서는 이미 이규수의 정치한 人物 분석이 존재한다.[67] 후지이는 황등제의 실패를 보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은폐했던, 지역사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국적'

66) 全北農地改良組合編, 1978, 『全北農組70年史』, 109쪽.
67) 이규수, 2007, 『식민지 조선과 일본 일본인』, 다홀미디어.

레벨의 '拓植家'이자 정치적 기업가였다. 그는 만경강 일대에서 不二全北農場과 임익수조, 不二沃溝農場과 익옥수조를 필두로, 평북 용천군의 不二西鮮農場과 大正水組, 강원 철원군의 不二鐵原農場과 中央水組 사업을 전개한 이른바 '不二型(=미간지형)地主'의 전형(=모험자본)이었다. 여기서도 대규모 수조사업을 가능케 한 소작제 대농장(이민촌 포함)이 수리조합과 정확히 하나의 세트(set)를 이루어 양자 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물과 사업'을 둘러싼 관변 측의 성공담과 선전전은, 최근 성행하는 在朝日本人, 植民都市史, 植民地公共性 연구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역연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개발'의 이중적 의미(개발과 격차, 동화와 차별)를 해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요청하고 있다.

3) 황등제를 포함한 임익수조 연구는 韓國水利史에서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의 嚆矢라는 추가적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이후 익옥(1920), 동진(1925), 전북(1941) 수조의 모델 케이스로서 식민지 지역사회에 대대적으로 전시·선전되었다. 특히, 재래 제언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저수지형 수조라는 유형론적 특질은 향후 한국현대 수리·농업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전통적 요소와 근대(식민지)의 변화상을 결합하는 문제, 지난 100년간 관개수리의 현대적 전개를 평가하는 문제 등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가령,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관료제적(=관변적) 특질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은 금세기에도 확인되고 있는데,[68] 이는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이 단순히 일제시대의 수리관개문제로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주제어 : 수리조합, 프로젝트, 저수지, 폭로

논문투고일 : 2015. 05. 13 **논문심사시작일 : 2015. 05. 18**
논문게재확정일 : 2015. 05. 22

68) Wade, Robert. 1982. Irrigation and Agricultural Politics in South Korea. Westview Press.

참고문헌

鎌田白堂, 1936,『朝鮮の人物と事業 湖南篇 第一輯』, 實業之朝鮮社.
久間健一, 1946,『朝鮮農業經營地帶の研究』, 農業總合研究刊行會.
東津農地改良組合編, 1975,『東津農組50年史』.
藤井寛太郎, 1911,『朝鮮土地談』.
蘇祈永, 1932,『益山郡誌(上下)』.
木原壽, 1928,『益山郡事情』.
山下英爾, 1915,『湖南寶庫 裡里案內』.
山下英爾, 1927,『湖南寶庫 裡里案內(一名 益山發展史)』.
宇津木初三郎, 1929,『朝鮮の寶庫, 全羅北道發展史』.
益山郡編, 1981,『益山郡誌』, 圓光社.
臨益水利組合, 1910,『土地收用令關係書類』.
臨益水利組合, 1911,『臨益水利組合關係書類』.
臨益水利組合, 1936,『臨益水利組合腰橋湖開畓工事施行認可書』.
臨益水利組合, 1936,『臨益水利組合腰橋湖干拓工事開畓設計變更認可圖』.
臨益水利組合, 1936,『臨益水利組合腰橋湖干拓工事開畓竣工圖』.
全羅北道編, 1928,『全羅北道要覽』.
全北農地改良組合編, 1978,『全北農組70年史』.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編, 1927~41,『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남궁봉, 1990,「하천유역일대 간석지상의 간척취락 유형에 관한 연구: 萬頃江·東津江 유역을 사례지역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수현, 2002,「일제하 수리조합 항쟁 연구: 1920-34년 산미증식계획기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徐承甲, 1991,「日帝下 水利組合 구역내 增收糧의 분배와 農民運動: 臨益·益沃水利組合을 중심으로」,『史學研究』41.
윤해동 외, 2010,『식민지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함께.
李光麟, 1961,『李朝水利史研究』, 韓國研究圖書館.
이경란, 1991,「日帝下 水利組合과 植民地地主制: 沃溝·益山지역의 사례」,『學林』12·13.
이규수, 2007,『식민지 조선과 일본 일본인』, 다홀미디어.

李愛淑, 1985,「日帝下 水利組合의 設立과 運營」,『韓國史研究』50·51.
이영훈, 장시원, 宮島博史, 松本武祝, 1992,『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장시원, 1992,「부평수리조합의 재정구조」, 이영훈外,『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정승진, 2004,「식민지지주제의 동향(1914~1945): 전북『益山郡春浦面土地臺帳』의 분석」,『한국경제연구』12.
정승진, 마쯔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 2005,「영주에서 식민지대지주로: 일본 귀족 호소카와(細川)가의 한국에서의 토지집적」,『역사비평』73.
정승진, 松本武祝, 2006,「토지대장에 나타난 농지개혁의 실상(1945~1970): 전북『益山郡春浦面土地臺帳』의 분석」,『한국경제연구』17.
정승진, 2009,「일제시대 전익수리조합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농촌경제』31-6.
정승진, 2009,「한말 일제초 전통 제언계의 근대적 수리조합으로의 전환: 만경강 하류 옥구서부수리조합의 사례분석」,『전북사학』34.
정승진, 2009,「한국근현대 농업수리질서의 장기적 재편과정(1908~1973): 만경강유역 전북수리조합의 합병사례분석」,『韓國經濟研究』26.
정승진, 2012,「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아세아연구』150.
정승진, 2013,「'開發'農政의 宣傳과 '同化主義': 전북 裡里 발행『朝鮮之產業』(1929~1936)의 분석」,『大東文化研究』84.
최원규, 1992,「조선후기 수리기구와 경영문제」,『국사관논총』39.
허수열, 2011,『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허수열, 2014,「일제초기 만경강 및 동진강유역의 방조제와 하천의 제방」,『경제사학』56.
홍성찬 외, 2006,『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수리조합, 지주제, 지역정치』, 혜안.

宮島博史, 1983,「李朝後期の農業水利-堤堰(溜池)灌漑を中心に」,『東洋史研究』41-4.
高崎宗司, 2002,『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木村健二, 1989,『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蘇淳烈, 1994,「植民地後期朝鮮地主制の研究—全羅北道を中心に—」, 京都大學 博士學位論文.

松本武祝, 1991,『植民地期朝鮮の水利組合事業』, 未來社.
松本武祝, 2005,『朝鮮農村の〈植民地近代〉經驗』, 社會評論社.
松本武祝, 2008,「韓國における農業水利組織の改編過程」,『歷史と經濟』199.
松田利彦, 陳姃湲, 2013,『地域社會から見る帝國日本と植民地』, 思文閣出版.
李圭洙, 1996,『近代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と農民運動』, 信山社.
鄭勝振, 松本武祝, 2013,「植民地朝鮮の日本人移民農村と同化主義: 全羅北道·大場村里の事例」,『東アジア近代史研究』16.
淺田喬二, 1968,『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龍溪書舍.
河合和男 外, 1999,『國策會社·東拓の研究』, 不二出版.

Chung, Seung-Jin, 2013, "A New Controversy over Korea's Moderniz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viewed from a Perspective of the Regional Agricultural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8 No.1.
Elkins, Caroline & Susan Pedersen. 2005. Settler Coloni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London: Routledge.
Matsumoto, Takenori & Chung, Seung-Jin. 2009 "On the Hosokawa Farm and the History of Daejangchon, a Japanese-style Village in Colonial Korea: Dilemmas in Rural Development." Korea Journal 49-3.
Said, Edward.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Wade, Robert. 1982. Irrigation and Agricultural Politics in South Korea. Boulder: Westview Press.

The Failure of a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in Colonial Korea: A Case Study of Hwangdeung-je Reservoir(黃登堤) in Iksan County, Honam Plains

Chung Seung-Jin

This paper brings light on the formation of the Imik Irrigation Association(臨益水利組合, hereafter IIA), through the repair work of Hwangdeung-je Reservoir(黃登堤) on and after the making process of Gyeongcheon-je Reservpot(庚川堤). This paper also exposes the secret of a colonial project in the context of Edward Said. The repair work of Hwangdeung-je Reservoir, actually the establishment of a huge reservoir, was the first case in Modern Korean Irrigation History as a large-scale project. In Honam Plains, so-called rice basket in Korea, it displayed a model case in colonial developmental history. In 1909, IIA was established by a 'famous' Japanese colonizer, Gantaro Huzii(藤井寬太郎). Although he invested huge capital in the early stage of irrigation project, surprisingly, he decided to close the repaired reservoir[黃登堤] in the middle 1930s, to establish a new reservoir as an alternative in the upper region of the Mangyeong-gang River(萬頃江). This fact directly shows the failure of large-scale developmental project in the colonial period. At that time a chain of irrigation projects in the valley of Mangyeong-gang River had concealed the failure of the Hwangdeung-je Reservoir Project.

Key Words: Irrigation Association, Project, Reservoir, Display, Exposure